

陰陽離合論의 三陰三陽과 開闔樞

I. 서론	15
II. 본론	15
1. 〈陰陽離合論〉의 편제상 의미	15
2. 三陰三陽	17
1) 陰中之陽과 陰中之陰	17
2) 三陽配屬	17
3) 三陰配屬	18
4) 根結篇과 관계	19
5) 考察	19
3. 開闔樞라는 용어에 담긴 의미	20
III. 결론	26
參考文獻	26

KYOBO
교보문고

陰陽離合論의 三陰三陽과 開闔樞

暎園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林鎭錫

I. 서론

〈陰陽離合論〉은 王冰이 편집한 黃帝內經素問에서 6번째 편이다. 이 편은 陰陽說을 인체에 적용하면서 陰陽을 다시 각각 셋으로 나누어 인체에 배속하였고 아울러 '開, 闔, 樞'라는 용어를 제시하였다. 三陰三陽이나 經絡의 위치 개념은 분명치 않아서 많은 학자들의 논란이 되어 정리와 해석이 절실한 반면, 三陰三陽의 기능을 비유한 開闔樞라는 용어는 비록 내경 이후 임상서적에서 발견하기 힘들지만 그 원리와 의미는 후세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하고 있다.¹⁾ 그러나 필자 견해로는 三陰三陽의 經絡 위치 개념은 명확한 반면 開闔樞라는 용어는 오히려 후세 주석가들이 잘못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陰陽離合論〉에서는 三陰三陽으로 인체의 구역을 겉과 속 그리고 전후 좌우로 비교적 분명하게 구분하여 후세에 經絡學說의 기초를 마련하였고, '開, 闔, 樞'라는 용어는 三陰三陽이 담당하는 인체 구역을 문의 앞, 뒤 측면에 빗대어, 빗장, 문짝, 문지도리로 비유한 설명일 뿐 三陰三陽의 기능이나 생리적 특성을 나타낸 개념이 아닌 것으로 고찰하였다.

이러한 假說을 바탕으로 本文에서는 〈陰陽離合

論〉의 편제상 의미, 三陰三陽 그리고 開闔樞에 내재한 의미를 논하고자 한다.

II. 본론

1. 〈陰陽離合論〉의 편제상 의미

《黃帝內經》은 저작 년대를 확실히 고증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 戰國에서 秦漢 사이 작품으로 평가하며,²⁾ 《史記》³⁾가 저작된 시기부터 《七略》이 저작된 시기 사이에 편집되었다고 하는데 최초 원본은 현재 망실하고 없다.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內經》은 후세 나온 注解書들이다. 널리 알려진 초기 주해서로서 南北朝時代의 全元起《素問訓解》가 있었지만 宋末 明初에 자취를 감추었고, 唐代에 楊上善의 《黃帝內經太素》와 이보다 100여년 늦은 王冰의 《補注黃帝內經素問》이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 王冰의 《補注黃帝內經素問》은 이전 全元起 本이나 楊上善의 《太素

1. 〈黃帝內經 素問 陰陽離合論에 대한 考察〉, 玉到勳, p. 2

2. 中國醫學史, p. 40

3. 司馬遷, BC 91년 초고 완성.

》가 후대에 면면히 전해지지 못한 것과 달리 계속 전해져 많은 영향을 끼쳤다.⁴⁾ 현재 한의과대학에서도 주 교재로 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王冰 본이 《太素》보다 《內經》의 이치를 학습하는 데에 더 유용 가치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부족하여 토론하기 어렵고 본 논제의 주 목적도 아니지만, 간단하게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太素》는 攝生, 陰陽, 人合, 藏府, 經脈, 俞穴, 營衛氣, 身度, 診候, 設方, 九鍼, 補瀉, 傷寒, 寒熱, 邪論, 風論, 雜病으로 크게 분류하고 각 권마다 다시 세부 분류하여 편집하였다. 반면에 王冰 본은 일정한 분류 형식 없이 이론이 산재하여 이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데에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太素》 분류대로 학습하는 것이 이론을 분류하여 학습하는 데에 정확한 듯이 보인다. 그러나 王冰 본도 일정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 王冰 본은 1, 2 〈上古天真論〉, 〈四氣調神大論〉과 3 〈生氣通天論〉과 4 〈金匱真言論〉 내용은 攝生에 관한 것이 주류다. 5, 6, 7편은 陰陽에 관한 편이고, 8, 9, 10, 11편은 五臟六腑와 五藏에 歸類하는 外形이 나온다. 15 〈玉版論要〉에서 13 〈陽明脈解〉까지는 거의 診斷에 관한 논이고, 31 〈熱論〉부터 49 〈脈解篇〉이 外感內傷에 해당한다. 50 〈刺要論〉에서 65 〈標本傳病論〉까지는 주로 經穴과 針法에 관한 것이다. 66부터 74까지는 運氣에 관한 것이고, 75에 81까지는 실제 임상에서의 어려운 점 등을 논한 것이다.⁵⁾ 왕빙본도 전체적으로 편집하는 데에 일정한 규율이 있으므로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크게 어려움이 없다. 오히려 기본에서 세부 각론까지 점진적으로 내용을 확대하여 수용하고 있으

며, 각 편 小題目에 부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비교적 일목요연하게 기, 승, 전, 결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을 소소하게 분류하여 한꺼번에 수용하는 《太素》보다 학습에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므로 왕빙이 주해한 《素問》을 학습하는 방법은 각 편에서 제목으로 제시한 이론 범위와 유관된 편에서 토론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효과적인 학습방법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가정으로 王冰 본을 학습할 때, 〈陰陽離合論〉은 陰陽과 관련한 내용을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왕빙이 편집한 의도였을 것이다. 즉, 楊上善의 《太素》에서는 '陰陽合'이라는 제목으로 '四海合', '十二水'와 함께 卷五에 배속하여 경락적인 측면을 중시했지만, 王冰이 주해한 《內經》에서는 〈陰陽離合論〉이란 제목으로 〈陰陽應象大論〉과 〈陰陽別論〉 사이에 넣음으로써 陰陽을 분리하고 자연에 대한 인간의 상응성을 더 중시했음을 추리할 수 있다.⁶⁾ 그리고 〈陰陽離合論〉은 본격적인 臟象論, 診斷, 治法, 질병, 運氣에 대한 설명이 나오기 이전 문장이므로 가급적 이러한 내용을 배제하고 해석하는 것이 원래 저술 의도에 부합할 것이다. 또 앞편 〈陰陽應象大論〉이 陰陽으로 만물을 설명하였다면, 〈陰陽離合論〉은 陰陽을 다시 각각 세 가지로 분화하였다가 다시 陰陽으로 귀납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주 내용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연구해야 한다.

어쨌든 〈陰陽離合論〉의 三陰三陽은 나중에 〈熱論〉의 病證과 《靈樞·經脈》 편이 나오게 되는 이론적 바탕이다. 이러한 전제 조건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陰陽離合論〉의 내용을 陰陽이 분화하고 다시 합하는 개념에 주로 국한하여 해석하

4. 《懸吐黃帝內經講義》, p. 39

5. 박찬국, 《동의화의 성립에 대한 연구》, 대한원전외사학회지 Vol. 5

6. 〈黃帝內經 素問 陰陽離合論에 대한 考察〉, 玉到勳, p. 18

고 三陰三陽으로 분화한 음양설을 어떻게 인체에 적용하는지 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기로 한다.

2. 三陰三陽

1) 陰中之陽과 陰中之陰

음양은 언덕을 중심으로 설정하고 빛을 받는 양달과 그늘진 음달을 비유하여 사물의 양쪽 속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용어다. 《내경》에서도 이러한 방식을 그대로 인체에 적용하여 남쪽을 향해서 태양을 보고 섰을 때 빛을 받은 전면을 陽으로 후면을 陰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다시 걸을 양(陰中之陽), 속을 음으로(陰中之陰) 구분하고 있다.

본편에서 말하는 “外者爲陽 內者爲陰”을 馬蒔는 “걸에 있는 것을 陽經이 되며 속에 있는 것은 陰經이 된다는 것을 말한다(言在外者爲陽經, 則在內者爲陰經),”라고 하였고, 또 張志聰은 陰陽의 氣를 지칭한다고 인식하고 “양기는 나와서 외부를 주관하고 음기는 상승하며 내부를 주관한다(陽氣出而主外, 陰氣升而主內),”라고 하였다. 《匯粹》에서는 “여기서는 三陰經을 논하고 있으므로 馬蒔 설명이 옳다.”라고 하고 “경맥을 지칭한 것이다(指經脈而言)”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필자 견해로는 여기서 말하는 陰과 陽은 “陰在內 陽之守也 陽在外 陰之使也”라는 《陰陽應象大論》 내용과 관련하여 인체를 걸과 속으로 나눈 단순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여기서 언급하는 陰과 陽의 전후와 표리 개념은 몸통을 중심으로 하고四肢는 생략하였고, 三陰三陽은 經脈 구역을 나누는 원시 개념으로서 수족 삼음삼양을 통합한 개념이다.

또 본문에서 三陰三陽을 陰陽으로 풀이한 별명을 보면, 太陽, 陽明, 少陽을 각각 陰中之陽, 陰中之陽, 陰中之少陽이라고 하였고, 太陰, 少陰, 厥陰을 각각 陰中之陰, 陰中之少陰, 陰中之絕陰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이 편 서론에서 “하늘은 덮고 땅이 싹고 나서 비로서 만물이 생긴다. 땅에서 아직 나오지 않은 곳을 음적인 곳이니 陰 중의 陰이라고 하고, 땅에서 솟아나온 것을 陰 중에서 陽이라고 한다(天覆地載, 萬物方生, 未出地者 命曰陰處, 名曰陰中之陰, 則出地者 命曰陰中之陽). …”라고 하여 땅에서 나오지 않은 부분을 음적인 곳이며 陰中之陰이라고 하였고, 땅에서 솟아나온 부분을 陰中之陽이라고 한 데에서 비롯한다. 즉 인체를 설명하면서 지구에 빗대어 걸을 陰中之陽, 속을 陰中之陰이라고 한 정의를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三陰三陽에 대해 조금씩 표현을 달리한 것은 陰陽의 특성을 분화한 개념이 들어간 것이다. 참고로 厥陰을 설명하고 있는 陰之絕陽은 문장 구조로 비교하였을 때 연문일 가능성이 높다.⁷⁾

2) 三陽配屬

三陰三陽의 구역 배속은 인체가 남쪽을 보고 섰을 때를 전제 조건으로 한다(“曰聖人 南面而立”). 그러므로 “前曰廣明, 後曰太衝”이라는 말은 인체를 앞면과 뒷면으로 나눈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주가들은 별다른 견해가 없는 듯하다. 그런데 “太衝之地 名曰少陰, 少陰之上 名曰太陽”이라는 구절을 대부분 다리에서 흐르는 少陰經과 太陽經의 上下 개념으로 풀이하었다.⁸⁾ 왕빙은 “그래서

7. 《讀素問鈔》 p. 12 에서도 생략하였다.

8. 吳崑 “少陰 腎脈은 새끼발가락 아래에서 흐르고, 太陽 膀胱脈은 새끼발가락 위에서 순행한다.”

張介賓 “少陰은 속에 있으므로 太陽은 겉에 있다. 陰氣는 아래에 있고 陽氣는 위에 있다. 그래서 少陰經은 새끼발가락 아래에서 시작하고, 太陽經은 새끼발가락 측면에서 시작한

바로 이어서 '太陽은 至陰에서 시작한다'라는 경맥 흐름이 나온다."라고 주해했다. 그러나 본문은 어디까지나 몸통에 분포하는 三陰三陽 구역을 설명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여기서 '上' 자 의미는 서론에서 제시한 '則出地者'를 인체에 그대로 도입한 개념으로서 "인체를 상하로 구분해 놓고 소음의 '윗부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등쪽 내부인 소음에서 '솟아나온' 등 표면'을 의미한다.

陽明에 대해서는 "中身而上, 名曰廣明, 廣明之下, 名曰太陰, 太陰之前, 名曰陽明"라고 하였는데, 역대 주가들은 '中身以上'을 대부분 신체 중간 윗부분으로 해석하여 심장이 있는 곳이라고 하였다.⁹⁾ 이렇게 횡격막을 중심으로 상하로 구분하면 아랫부분은 太陰이 된다. 이렇게 되면 횡격막을 기준으로 상부를 廣明, 하부를 太陰으로 규정하게 된다. 또 "太陰 앞은 다시 陽明이 된다"라고 하였다. 이렇게 되면 陽明이 담당하는 부위도 횡격막 아래 복부 표면에 국한하게 된다. 이제까지 과정을 다시 말하면 횡격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윗부분은 廣明이고, 횡격막 아래로 걸은 陽明이 되고 속은 太陰이 된다.

廣明은 三陰三陽이 분화하는 영역을 구분하고 빛을 받는 전면을 강조하는 용어일 뿐이다. 그래서 인체에 다시 廣明이라는 영역을 배분하는 것은 三陰三陽 영역을 설정하는 데에 맞지 않는다. 또 陽明과 太陰을 모두 횡격막 아래로 국한하는 것은 후에 나오는 《靈樞·經脈》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陽明을 정의할 때에도 "未出地者"와 "則出地者" 개념을 도입하여 인체에서 전면인 廣明의 '下'부를 "전면에서 '속'으로 해석하고, "太陰之前"

다. 그래서 少陰의 위를 太陽이라고 한다.

9. 天爲陽, 地爲陰. 腰以上爲天, 腰以下爲地. 分身之旨, 則中身之上屬於廣明, 廣明之下屬太陰也. 又心廣明藏, 下則太陰脾藏也. 《黃帝內經素問》,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63.

에서 '前'을 "太陰의 '表面'으로 해석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中身'을, 太陽을 보고 섰을 때를 기준하여 앞뒤로 구분하는 중간 지점으로 보면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다. 이렇게 되면 陽明을 설명하는 구절인 "中身而上, 名曰廣明, 廣明之下, 名曰太陰, 太陰之前, 名曰陽明"은 "신체 앞부분은 태양을 받고 있어서 밝은 부분인데(廣明) 전면에서 속부분은 太陰이 되고 太陰에서 솟아나온 전면 겉부분을 陽明이라고 한다."라고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다.

또 少陽에 대해서는 "厥陰之表 名曰少陽"이라고 하였다. 원문에서 太陽, 陽明, 少陽을 각각 少陰之上, 太陰之前, 厥陰之表라고 하여 위치 개념을 각각 上, 前, 表로 달리 나타냈지만, 사실은 솟아나온 표면을 의미하는 동일한 개념이다. 그런데 여기서 厥陰이 인체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 구체적 인 지적이 없다. 다만 인체의 속 부분인 厥陰에 해당하는 곳에서 겉부분을 少陽이라고 부른다고 했을 뿐이다. 太陽과 陽明을 이미 전후 개념으로 활용하였으므로 표면에서 少陽이 배속될 부분은 陽地와 陰地가 교차하는 부분밖에 남지 않는데, 이 부분은 바로 인체가 빛을 향하고 섰을 때 측면에 해당한다. 少陰의 앞을 厥陰이라고 한다고 하였는데, 少陰은 이미 三陽經을 설명하면서 등 쪽에서 속 부분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러므로 '少陰의 앞'이란 바로 등 속에서 전면의 속인 太陰 쪽으로 향하는 곳이며 인체의 중심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3) 三陰配屬

본 편에서 三陽을 배속하면서 이미 三陰을 같이 서술하였으므로 三陰配屬은 자연히 드러난다. "中爲陰 其衝在下, 名曰太陰"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太陰은 명칭에 걸맞게 비교적 속에서 넓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또 “太陰에서 뒷부분은 소음이다(太陰之後 名曰少陰)”라고 하였으므로 太陰에서 등쪽으로 향한 속 후반부가 少陰에 해당한다. 또 “少陰之前 名曰厥陰”이라고 하였으므로 厥陰은 앞으로는 太陰, 뒤로는 少陰 사이에 끼여 있는 중간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또 厥陰의 별명으로 “陰이 다했다”라고 하였으므로 少陰의 앞에서 太陰까지 극히 작은 구역을 암시하고 있다.

4) 根結篇과 관계

《陰陽離合論》에서는 三陰三陽을 인체에 배속한 후 經脈 기지점을 아울러 기술하고 있다. “太陽 根起於至陰 結於命門, … 陽明 根起於厲兌, … 少陽 根起於竅陰, … 太陰 根起於隱白, … 少陰 … 根起於涌泉, 厥陰 … 根起於大敦”라는 부분이 여기에 해당한다. 王冰은 三陰三陽을 배속한 후 구체적인 실례라고 주해하였지만, 이것은 《靈樞·根結篇》에 영향을 받은 문장으로 보인다. 《素問》이 단계적으로 攝生부터 陰陽五行 그리고 臟象論으로 차례를 지키면서 저술되었다고 보았을 때 經絡이나 針灸가 아직 나올 단계가 아니다. 그래서 이 귀절들은 구역을 배속하면서 구체적으로 經絡으로 보았을 때 시작점이 이렇다는 사실을 기술하였을 뿐 陰陽이 분화하고 통합하는 면에서는 그다지 중요한 구절은 아니다.

5) 考察

이상 추론에 의하면 전면에서 걸은 陽明, 속은 太陰이며, 뒷면에서 걸은 太陽, 속은 少陰이다. 또 전면과 후면의 중간 지점에서 속은 厥陰, 걸은 少陽이다. 이렇게 되면 陽明과 太陰, 太陽과 少陰, 厥陰과 少陽이 완전한 포리관계가 성립한다. 《素問·熱論》에서 생명이 위태로운 兩感病을 정의하였다.¹⁰⁾ 이 때 의미는 바로 속을 포함한 전면, 후

면, 측면으로 寒邪가 각각 포리에 동시에 감염되는 것을 의미하여 《陰陽離合論》의 三陰三陽 表裏配屬을 病理에 직접 응용한 부분이다.

그리고 뚜렷하게 규정하기 어렵지만 이들 三陰三陽의 분포는 공간을 균등하게 1:1:1로 분할한 개념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三陰만 보았을 때, 가운데를 太陰이라고 하였으므로 太陰이 가장 크고, 뒷부분이 少陰이므로 少陰이 그 다음이고 厥陰은 陰이 끊어질 만큼 영역이 작다. 그리고 厥陰과 포리 관계를 이루고 있는 少陽도 실제 크기가 제일 작다고 할 수 있다. 三陽만 보았을 때 다소 모호하지만 인체 횡단면도가 완전히 등글지 않고 전후로 납작한 형태이므로 양지와 음지가 교체하는 少陽은 분명 太陽과 陽明에 비하여 작을 수 밖에 없다. 太陽과 陽明 크기는 아직 구분하기 어렵다. 다만 太陽은 《熱論》에서 巨陽이라고 한 사실을 참고하면 太陽이 크다는 것을 연상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후대 학설에서도 밝혔다.¹¹⁾

이렇게 三陰三陽을 表裏와 前後, 그리고 측면 개념을 도입하여 입체적으로 도식하면 다음과 같은 두 결론이 나온다.

1. 《陰陽離合論》은 三陰三陽의 공간적인 위치 개념을 정확히 묘사하고 있으며, 위치 개념이 모호하다는 평가는 三陰三陽 위치를 나타내는 ‘上, 前, 表’를 서두의 ‘出地者’와 ‘未出地者’라는 전제 조건과 결부하지 않고 문자만으로 ‘윗부분’, ‘앞면’

10. 其病兩感於寒者, 其脈應與其病形何如? 岐伯曰: 兩感於寒者, 病一日則巨陽與少陰俱病, 則頭痛口乾而煩滿; 二日則陽明與太陰俱病, 則腹滿身熱, 不欲食語言; 三日則少陽與厥陰俱病, 則耳聾囊縮而厥. 水漿不入, 不知人, 六日死. 《素問·熱論》

11. 각각 一三陰인 厥陰, 少陰, 太陰과 一三陽인 少陽, 陽明, 太陽은 陰陽의 氣의 多少에 따르면, 陽多者가 太陽이고, 次少者가 陽明이고, 又少者가 少陽이며, 陰多者가 太陰이고, 次少者가 少陰이고, 又少者가 厥陰이나, … 《陰陽運動과 六氣의 承制關係에 대한 考察》, 朴王用, 申致圭. 동의생리학회지 Vol.3, No.2, 1988. p. 51

그리고 '겉으로'로 풀이함으로써 발생한 오류임을 알 수 있다. 본문에서 제시한 '上, 前, 表'는 모두 '則出地者'에 해당하는 신체 표면을 나타낸다.

2. 현재 《靈樞·經脈篇》을 바탕으로 十二經의 流走圖를 그릴 때, 表裏概念을 같이 도입해야(陰陽離合論) 원래 의미를 잃지 않는다. 현재 經穴圖는 모두 체표면에 선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三陰인 陰中之陰과 三陽인 陰中之陽은 表裏 개념을 중시한 정의이므로 세 가지 가설을 추론할 수 있다.

첫째, 陰經은 깊은 부분에 위치해야 하며 陽經은 표면에 위치하는 것으로 차별을 두어 분포도를 그려야 한다. 그러므로 체표면에 일률적으로 도식화한 동인도는 실제 三陰三陽 배속을 이해하는데 잘못된 입체감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 다시 말하면 三陽은 그대로 표면에 그리지만, 三陰은 심부에 위치하여 陰陽을 表裏로 구분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내부가 그대로 보이는 재질로 심부 영역까지 같이 입체화하는 銅人이 필요할 것이다.

또 少陰에 속하는 足少陰腎經을 현재 銅人圖에서는 복부에 묘사하고 있지만(陰陽離合論)에서 실제 구역은 등쪽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陰陽離合論)에서 三陰三陽의 前後表裏側面 개념은 어디까지나 몸통에 국한하여 적용한다. 왜냐하면 본 편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四肢에 해당하는 經脈은 《靈樞·九鍼十二原》에서 井, 榮, 輸, 經, 合을 제시하고 각각 속성을 "所出爲井, 所溜爲榮, 所注爲輸, 所行爲經, 所入爲合"이라고 규정하였으며, 五俞穴은 깊숙한 經脈의 흐름이 아니라 體表에 地表水 같은 흐름이라고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¹²⁾ 그러므로 四肢의 經脈 분포는 體幹에서 表裏로 간주한 개념과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12. 《黃帝內經 本輸理論에 대한 연구》, 李容範, p. 50

3. 開闔樞라는 용어에 담긴 의미

(陰陽離合論)에서는 "太陽爲開, 陽明爲闔, 少陽爲樞, ... 太陰爲開, 厥陰爲闔, 少陰爲樞, ..."라고 하여 三陰三陽을 開, 闔, 樞라는 용어로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開闔樞가 과연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지는 점이다.

먼저 대대수 注家들은 開闔樞를 문에 빗대어 각 經脈의 생리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풀이하였다. 그래서 開闔樞를 각각 "열고, 닫고, 추로 역할을 한다"라고 하였으며, 이것을 다시 '表, 裏, 半表半裏'라는 위치 개념으로 확대 해석하였다.¹³⁾ 구

13. 張介賓(類經)卷九第二十九: "太陽이 開가 된다는 것은 陽氣가 외부로 일어나서 三陽 중에서 겉이 된다는 의미다. 陽明이 闔이 된다는 것은 陽氣가 속에 쌓여서 三陽 중에서 속이 된다는 의미다. 少陽이 樞가 된다는 것은 陽氣가 겉과 속 사이에 있으면서 나오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여 樞機와 같다는 의미다. (太陽爲開, 謂陽氣發於外, 爲三陽之表也. 陽明爲闔, 謂陽氣蓄於內, 爲三陽之裏也. 少陽爲樞, 謂陽氣在表裏之間, 可出可入, 如樞機也.)"

張志聰: "음과 양은 나누면 三陰三陽이 된다. 그래서 開闔樞가 있는 것이다. 태양은 큰 양으로서(巨陽) 양기가 치성한다. 그래서 여는 것을 담당하고, 陽明은 두 양 사이에 합해져서 닫는 것을 담당한다. 少陽은 처음 나오는 기로서 추를 담당한다. (陰陽之氣, 分而爲三陰三陽, 故有開闔樞也. 太陽者, 巨陽也, 爲盛陽之氣, 故主開. 陽明合於二陽之間, 故主闔. 少陽乃初出之氣, 故主樞.)"

吳崑: "太陽은 겉에 있으면서 양기를 확장하게 퍼뜨리며, 陽明은 속에 있으면서 陽氣를 받아들이므로 합이라고 하고, 少陽은 겉과 속의 중간에 있으면서 陽氣를 돌리고 옮기므로 樞라고 한다. (太陽在表, 敷轉陽氣, 謂之開; 陽明在裏, 受納陽氣, 謂之闔; 少陽在於表裏之間, 轉輸陽氣, 猶樞軸焉, 謂之樞.)"

馬蒔: "양기는 분열하면 太陽, 陽明, 少陽으로 나뉜다. 그러나 태양은 三陽으로서 양 중에서 겉이며 의의는 여는 것이다. 陽明은 二陽으로서 양 중에서 가운데이며 의의는 닫는 것이다. 소양은 一陽으로서 양 중에서 속이 되며 의의는 樞가 되는 것이다. 樞가 없으면 주관하지 못하고, 닫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하고, 열지 않으면 나가지 못하므로 진실로 분열

체적으로 太陽經은 三陽經 중에서 淺表 부위에 위치하고, 陽明經이 닫는 작용을 한다는 것은 陽明經이 속에 위치한다는 말이며, 소양경이 樞로 작용을 한다는 것은 전술한 두 經 중간에서 문지도리 같은 작용을 한다고 풀이하였다. 三陰經도 같이 유추할 수 있다.¹⁴⁾

이러한 생리상 특징을 傷寒論의 三陰三陽 순서에 결부하여 張仲景이 비록 원문에서 '開, 闔, 樞'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傳變'만을 말했으나 역대 주가들은 대부분 傷寒論을 '開, 闔, 樞'이론으로 해석하였다고 하였고, 傷寒論 전변과정에 맞추어 少陰을 樞에서 闔으로, 厥陰을 闔에서 樞로 바꾸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기까지 하였다.¹⁵⁾

清代의 柯琴도 張仲景의 六經을 경맥이 아니라 구역이라고 六經地面說을 주장하면서도 開闔樞에 대해서는 작용면을 중시하였다.¹⁶⁾ 그러나 <陰陽離

合論>에서 말하는 인체의 陰과 陽은 어디까지나 '陰中之陽(걸)'과 '陰中之陰(속)'이므로 <內經>을 저술한 당시 학자들이 말하는 '開闔樞'가 후세 학자들이 말하는 '열리고, 닫고, 추가 되며'라는 의미를 설명하는 용어였으며, 그래서 '主表하고 主裏하고 主半表半裏한다.'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開闔樞라는 용어를 빌려 썼는지 대단히 의심스럽다.

필자는 여기서 開闔樞는 기능적인 면을 중시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문을 구성하는 빗장, 문짝, 지도리도 인체에서 담당하는 영역을 빚낸 용어로 썼다고 가정하며,¹⁷⁾ 그 근거를 아래 몇 가지로 제시한다.

1) <陰陽離合論>에서 三陽은 表, 裏, 半表 半裏가 아니고 모두 體表며, 마찬가지로 三陰은 모두 신체 내부다.

<陰陽離合論>에서 제시한 三陰三陽의 배속은 <熱論>에서 본격적으로 명리설에 활용하고 있다. <熱論>에서 "三陽經絡이 모두 病邪를 받았으나 아직 臟에 들어가지 않은 者는 땀을 내면 나을 수 있다.(三陽經絡皆受其病, 而未入於藏者, 故可汗而已.)"라고 하였고, 또 "아직 三日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땀을 내면 낫고, 삼일

하였다가 합하지 않을 수 없다. (其離有太陽陽明少陽之分. 然太陽者, 三陽也, 爲陽之表, 其義曰開. 陽明者, 二陽也, 爲陽之中, 其義爲闔. 少陽者, 一陽也, 爲陽之裏, 其義曰樞. 非樞則無所主, 非闔則無所入, 非開則無所出, 誠離之不能以無合也.)"

이와 같은 설명에서, 吳崑은 氣로 풀이하였고, 馬蒔는 一, 二, 三陽의 순서로 풀이하였고, 張介賓은 걸과 속으로 풀이하였다.

14. <今釋黃帝內經素問>, 成輔社, 1994. p. 105

15. <今釋黃帝內經素問>, 成輔社, 1994. p. 106, 107

16. 六經의 정의를 새롭게 주장하면서 내세운 六經地面說은 후대 傷寒研究家 뿐만 아니라 일반 의가에까지 상한론 정신인 변증시치의 대강을 명확히 파악하게 하는 공헌을 하였다. 그 이유는 柯琴은 중경의 상한론이 경락에 구속받지 않으며, 외감에 구애받지 않음을 증명하였기 때문이다. <柯琴의 傷寒學說序> 본 仲景의 六經體系, 柳基德 p. 46

太陽爲開를 太陽이 主表하는 논리적 근거로 삼았으며 그 근거로 太陽病 提綱의 惡寒을 들었다. (熱病에는 惡寒이 없고, 反惡熱한다.) 陽明爲闔을 陽明이 主裏하는 것과 결부하여 증거로써 陽明病提綱의 胃家實을 들었다. (熱病의 陽明에는 目痛, 鼻乾 등이 있으나 胃家實의 症은 없다.) 少陽爲樞, 少陰爲樞를 主半表半裏와 결부하고, 少陽은 樞樞, 少陰은 陰樞로 구분하였다. 少陽은 陽樞이므로 半表에 歸重하므로 提綱에 口渴, 咽乾, 目眩만 언급하였고, 胸脇硬滿은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少陰은 半裏에 歸重하므로 脈微細但欲寐만 언급하고, 舌乾, 口燥의 症은 提綱에 넣지 않은 것이라고 하였다. 윗 논문 p. 28

17. 여기서 '가정'이라는 표현은 비록 논문 서술방식에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여러 의미가 있다. 첫째, 필자 지식이 내경을 철저히 꿰뚫지 못하므로 본 논문에서는 <내경>의 많은 편 중에서 단지 음양이합론, 열론, 근결편, 경맥편을 참고로 기술하였으므로 단정적으로 말하기 곤란하기 때문이다. 또 내경이후 바다처럼 많은 한의학문헌에서 개합추가 어떻게 응용되고 활용되었는지 전부 뒤져서 비교하여 논할 수도 없어서 부득이 가정이라고 표현하였다. 둘째는 많은 논문들이 자신들 견해가 진리인 것처럼 단정하여 독자들에게 오해와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흔하여 단정적으로 주장하지 않았다. (필자주)

이 된 경우에는 사하하면 나올 수 있다.(其未滿三日者, 可汗而已: 其滿三日者, 可泄而已.)"라고 했다. 여기서는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傷寒 熱病이 經을 따라 순차적으로 發病할 때 외부와 내부를 대비하여 처방을 구분한 말이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三陽은 體表고 三陰은 體內에 속한다는 것이 <熱論>의 三陰三陽 사상이다. 그래서 후대에는 실제로 그러한 의미로 쓰였는지 모르겠지만 <內經>을 저술한 편집자들은 注家들이 논하는 것처럼 三陰三陽의 開闔樞를 각각 表, 裏, 半表半裏로 쓰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¹⁸⁾

2) 開闔樞를 六氣로 설명해도 상호 관련성이 없다.

清代 張志聰이 主唱한 六氣說에 의하면, 傷寒은 外因이지만, 傷寒이라는 본뜻은 風, 寒, 暑, 濕, 燥, 火의 六氣가 모두 포함되는 것이며, 病症, 病理에 모두 表裏, 寒熱, 虛實, 氣血, 正邪, 陰陽 등이 갖추어져 있다고 하였으며, 張志聰은 仲景 傷寒論의 三陰 三陽을 <內經>의 <陰陽大論>과 <生氣通天論>에 부회시켜 해석하였다.¹⁹⁾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음양을 인체 구역에 나누어 설정하면, 太陰과 陽明, 厥陰과 少陽, 少陰과 太陽이 짝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開闔樞에 적용하면, 關과 闔, 闔과 樞, 樞와 關으로 관계가 설정되어 이들 상호간에 아무런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

이것을 六氣說과 관계를 지으면 太陰(濕土) 陽明(燥金), 厥陰(風木)과 少陽(相火), 少陰(君火)과 太陽(寒水)가 된다. 이때 濕土와 燥金, 風木과 少陽, 君火와 寒水는 그런데로 짝을 이루고 있지만, 다시 開闔樞에 그대로 적용하면 關은 寒水와 濕土며, 闔은 燥金과 風木이며, 樞는 相火와 君火다. 여기서 相火와 君火가 같은 火氣로 樞를 형성하는 외에, 寒水와 濕土가 같이 關이 되며, 燥金과 風木이 같이 闔이 되어 관계 설정이 어렵다. 아래처럼 표를 만들어 보아도 그 사이에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

	陽	陰	六氣	
			陽	陰
關	太陽	太陰	寒水	濕土
闔	陽明	厥陰	燥金	風木
樞	少陽	少陰	相火	君火

또 문제는 陰陽이 분화하고 합하는 문제에 있어서 六氣가 별찌 등장한다는 것은 글을 서술하는 순서로 보았을 때 불합리하다. 따라서 여기서 언급하는 三陰三陽을 六氣로 풀이한다는 것은 무리다.

3) 開闔樞는 후대에 이미 關闔樞를 잘못 옮겨 쓴 것으로 평가한다.

앞서 말한 것처럼 開는 '열린다', 闔은 '닫는다', 樞는 '지도리다' 라고 하여 傷寒論에서 설명하는 邪氣가 전변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지금까지 추세였다. 그러나 開闔樞는 같이 각각 명사로 쓰였으며, 문헌적 고증을 통하여 關闔樞가 적절하고, 關闔樞란 바로 빗장, 문짝, 지도리에 해당한다는 논문이 다수 발표되었다.²⁰⁾ 이와 관련하여 胡

18. <內經>에서 외감 질병이 발생하는 기본 과정은 겉에서 속으로 진행한다. 주로 가장 바깥인 피부에서 시작하여 체내 精氣 강약에 따라 점차 심부로 진행한다. <熱論>에서 熱病이 太陽에서 陽明, 少陽으로 전해지고 다시 太陰에서 少陰, 厥陰으로 진행된다는 것은 인체 깊이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또 三陰三陽이 각각 신체 어느 부분을 담당한다고 전부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陽明이 主肉하고 少陽이 主骨한다는 말은 三陰三陽의 깊이 차이를 어느 정도 인정한다고 할 수 있다. (필자 주)

19. 柯琴의 傷寒學說로 본 仲景의 六經體系, p. 15

20. ①<太素> 蕭延本에서는 開, 闔, 樞를 關, 闔, 樞로 기재하여, 開가 關으로 되어 있다.

②<靈樞·根結>; "奇邪離經, 不可勝數, 不知根結五藏六府, 折關敗樞開闔而走"

天雄은 醫經 한 글자가 잘못되어 후세에 와전됨으로써 중국의 의학 이론에 심각한 혼란을 야기하였으니 신중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극평하였다.²¹⁾ 그렇다면 이제부터 關闔樞로 정정하여 원문을 어떻게 해석해 볼 것인지 고찰한다.

4) 關闔樞에 관한 해석

결론적부터 말하면 三陰三陽의 關闔樞는 어차피 인체를 구역별로 구분한 개념이므로 각 구역에 자연스럽게 내재한 생리상 특징이나 기능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어디까지나 三陰三陽에 따라 구획을 설정한 이론을 문짝에 빗대어 다시 한번 설명한 예시에 불과하다.²²⁾ 다시 말하면 인체를 크게 전면과 후면으로 구분하였을 때 陰과 陽으로 나눌 수 있으며, 겉과 속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陰中之陽과 陰中之陰이 되고, 이것을 다시 三陰三陽으로 분리하여 설명하면 앞에서 등쪽 순서로 설명하였을 때, 겉은 陽明, 少陽, 太陽이 되고, 속은 太陰, 厥陰, 少陰이 된다는 것은 앞서 설명하였다.

關闔樞는 이러한 설명을 말로만 표현하는 것보다 빗장, 문짝, 문지도리 3요소를 갖추고 있는 문으로 공간적 영역을 단순하게 나누어 다시 설명한

것이다. 그러므로 〈陰陽離合論〉 본문은 전체적인 내용이 인체를 구역별로 三陰三陽으로 나누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다. 이것이 발전하여 나중에 經脈說이 나오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본문에서 끝으로 陰陽이 분화했다가 다시 합해서 一陰과 一陽이 되는 것을 “三經者 不得相失也 搏而勿浮 命曰一陽. 三經者 不得相失也 搏而勿沈 名曰一陰. 陰陽雫重雫重이 積傳爲一周 氣裏形表而爲相成也.”라고 하였다. 여기서 ‘三陰三陽이 서로 잃으면 안된다’는 구절은 조화를 잃어서는 안된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搏而勿浮’와 ‘搏而勿沈’ 두 구절이다. 역대 주해가들은 ‘搏而勿浮’에 대해서는 대체로 三陽經의 脈狀으로 풀이하여 陽의 인 浮脈이 지나치지 않은 것으로 풀이하였고,²³⁾ ‘搏而勿沈’에 대해서도 脈狀으로 풀이하여 陰의 인 沈脈이 지나치지 않은 것으로 풀이하였다.²⁴⁾ 그러

23. [校釋] 三陽經의 맥상은 비록 각각 다르지만, 陽脈은 대부분 浮脈이다. 그런데 浮脈이 지나치면 病脈이 된다. 만약 손에 느껴지는 박동이 힘이 있으면서 지나치게 浮하지 않으면 이것은 세 陽이 협조하며 합하여 하나가 되는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一陽이라고 하였다. (三陽經之脈象, 雖各有不同, 但陽脈多浮, 而浮之太過則爲病脈, 若雖搏手有力而不至過浮, 是三陽協調, 合而爲一的徵兆, 所以稱爲一陽.)

[匯釋] 박(搏)은 三陽經의 맥박이 손에 느껴지는 것을 말한다. (搏, 指三經之脈搏擊於手.) 張介賓: “맥상이 비록 三陽經이 각각 모습이 다르지만, 그러나 陽脈은 대부분 浮하다. 만약 부드러운 느낌이 없이 순수하게 浮脈만 나타나면 질병이 든 상태다. 그래서 손에 충돌하는 맥상이 힘이 있으면서도 양기가 부드러운 모습이 있고 지나치게 浮하지 않은 상태를 ‘三陽이 합하여 하나가 되는 도’라고 한 것이다. 이것을 一陽이라고 명명하였는데, 이것이 三陽脈이 흩어지고 합하는 것이다. (其爲脈也, 雖三陽各有其體, 然陽脈多浮, 若純於浮, 則爲病矣. 故但有搏手有力, 得其陽和之象, 而勿至過浮, 是謂三陽合一之道, 故命曰一陽, 此三陽脈之離合也.)” 《黃帝內經素問校注匯粹》, 金圭烈編譯, 一中社, p. 109

浮而不至於虛, 所以搏者胃氣也. 故曰一陽. 愚謂搏手有胃氣, 浮而不至於虛, 則三陽齊一無復有差降之爲用也. 若浮而虛則三陽差降而相失矣. 《素問問診》 p. 12

③《素問·皮部論》：“太陽之陽，名曰關樞，太陰之陰，名曰關竅”

④《靈樞·本藏》：“衛氣者 所以溫分肉 充皮膚 肥腠理 司關闔者也”라고 하였는데, 《太素》卷六 五臟命分에서 ‘司關闔’으로 되어 있다.

⑤水熱穴論：“腎者 胃之關也, 關門不利”에서 關이 ‘문빗장’으로 쓰였다.

이상, 김인락. 〈내경〉의 몇몇 구절에 대한 대구법적 연구(1)에서 발췌.

21. … 醫經一字之誤, 後世以訛傳訛, 容易造成祖國醫學理論上的極大混亂, 不可不慎. 《素問補識》 p. 55

22. 실제 내경을 연구함에 있어서 어떤 고정된 형식에 맞추려하기 보다는 왜 이 편에서는 이런 형식을 취했나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경의 진의를 알기 어렵다. 박찬국. 《今釋黃帝內經素問》, 成輔社, p. 104

나 반복하여 언급하였듯이, 《내경》 여섯째 편에서 벌써 診脈과 診斷이 등장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물론 《陰陽應象大論》에서 診斷에 관련한 부분이 출현하지만 이것은 총론에 불과하며 陰陽論에 대한 예시일 뿐 진단에 관한 본격적인 내용은 15편 이후에 출현한다. 그래서 필자는 가능한 陰陽이 분산하고 합하는 과정으로 해석하려고 하였다. 高世栻은 '搏'을 '搏(몽질 단)'으로 풀이하여, '名曰一陽'을 해석하기 위하여 '搏'을 '三陽이 몽질 단'의 의미로 풀었다. 그런데 '하나로 응결하여 뜨지 않는다'고 풀이하여 다소 모호한 개념이 되었다.²⁵⁾

《內經辭典》에는 '搏' 자를 쓴 용례가 몇가지 나열되어 있다. 여기서는 본 구절에 쓰인 搏을 '搏動, 躁動'이라고 풀었다. 그러나 다른 구절에서 쓰인 용례를 참고하면, 《靈樞·本神》에 "生之來謂之精이오, 兩精相搏謂之神이오 隨神往來者謂之魂"이라는 구절이 있다. 여기서는 '搏'을 '交結'로 풀이하였다. 이것은 "모든 만물이 나서 자라는 道는 陰과 陽이 교류한 후 神明이 나타나는 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인체가 태어날 때에는 반드시 陰氣와 陽氣가 합하고 부모의 精이 맺고 두 精이 서로 얽히고 결합하여(交結) 形과 神이 생긴

24. 張介賓: "세 經은 모두 陰이다. 陰脈은 모두 沈하며 서로 제 모습을 잃어서는 안된다. 만약 沈脈이 지나치면 병이다. 따라서 沈하면서 神이 있어서 각각 陰脈 속에 부드러운 맥상이 있어야 한다. 이것을 三陰이 합하여 하나가 되는 道다. 그래서 一陰이라고 한 것이며, 이것이 三陰脈이 벌어지고 합하는 것이다. (三經皆陰, 陰脈皆沈, 不得相失也. 若過於沈, 則爲病矣. 故但宜沈搏有神, 各得其陰脈中和之體, 是爲三陰合一之道, 故名曰一陰, 此三陰脈之離合也.)" 《黃帝內經素問校注匯粹》, 金圭烈編譯, 一中社, p. 110

沈而不至於溺, 所以搏者胃氣也. 故曰一陰. 《讀素問鈔》 p. 12

25. 高世栻은 '搏'을 '搏(몽질 단)'으로 규정하고 "소리는 '단'이다. 모아서 하나로 응결하여 뜨지 않는 것이다(音圓, 聚凝一而弗浮)."라고 풀이하였다. 搏과 搏은 고대에 통용하였다. 《黃帝內經素問校注匯粹》, 金圭烈編譯, 一中社, p. 109

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今釋》에서는 이것을 "생명의 來源이 되는 물질을 '精'이라 하고, (남녀의) 兩精이 결합하여 형성된 생명력을 '神'이라 하며, 神을 따라서 왕래하는 것을 '魂'이라고 하고..."라고 해석하였다.²⁶⁾ 중국 현대문으로 풀이한 곳에서는 "生命的來源是精, 陰陽兩精搏結, 神形乃成, 隨神的盛衰而變化的是魂, ..." ²⁷⁾라고 하여 '搏'을 '搏結'로 해석하였다. '搏結(잡는다, 맺는다)'은 현대 중국어 사전에는 나오지 않지만, 충돌하여 합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搏而勿浮'와 '搏而勿沈'에서 '搏'을 交結로 간주한다면, 搏은 '搏(단)'으로 쓰였으며 三陰과 三陽이 다시 一陰과 一陽으로 합한다는 의미로 풀 수 있다. 이것을 더 추론하면 여기서 '搏'이란 關闔樞가 풀이지지 않고 한데 어울려 있는 상태며, 문을 빚댄 표현으로는 결국 '문이 잠겨있다'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搏을 반드시 脈動이라는 진단적 의미로 해석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陰陽離合論》은 陰과 陽이 분화하고 결합하는 작용과 구역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중점 내용이므로 굳이 診斷으로 풀이할 필요가 있을지 의심스럽다.

그러므로 三陰과 三陽은 문을 빚장, 문짝, 지도리로 분리하여 본 개념이고, 一陰과 一陽은 문을 닫고 관찰한 모습이다. 다음에 말하는 '勿浮'와 '勿沈'은 맥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문자로 그냥 '걸로 나오지 말라', '속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의미로 풀 수 있으므로 '搏'을 문이 닫혀 있다는 뜻으로 고찰할 수 있다.²⁸⁾

26. 《今釋黃帝內經素問》 p. 109

27. 《白話中醫四部經典》 p. 248

28. 《陰陽離合論》 서두는 "성인이 남쪽을 보고 서 있을 때...에서 시작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 몸에 양지와 음달이 생긴다. 음양 개념을 인체에 적용하면 앞은 陽이 되고, 뒤는 陰이 된다. 그런데 이 편에서는 인체의 肉身을 기본적으로 陰으로 설정하고, 전후 개념보다 '땅 속이나(몸 속이나), 솟아

이렇게 되면 關闈樞는 인체의 생리적 특징이나 외부에서 病邪가 침입하는 순서를 말하는 개념으로 굳이 해석하지 않고 단지 문적으로 三陰三陽 구역을 비유한 설명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단지 문제는 《素問·熱論》에서 太陽經에서 시작하여 六經이 傳變되는 과정이 있으므로 三陰三陽에 분명히 깊이 개념이 존재하며 여기에 수반한 기능상 특징이 있을 것이다. 또 《靈樞·根結》에서 三陰三陽이 이상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을 “太陽爲開 陽明爲闈 少陽爲樞 … 開折則肉節瀆而暴病起矣(瀆者 皮肉宛靡而弱也) … 闈折則氣無所止息(無所止息者 眞氣稽留 邪氣居之也) 而痿疾起矣. … 樞折即骨繇(骨繇者 節緩而不收也) 而不安於地. / 太陰爲開 厥陰爲闈 少陰爲樞 … 開折則倉廩無所

輸 膈洞(開折者 氣不足而生病也) … 闈折即氣絕而喜悲 … 樞折則脈有所結而不通.”이라고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陰陽이 분화하여 각각 일정한 구역을 담당하는 三陰三陽은 인체의 결면과 속을 의미하면서도 서로 다른 깊이 차이나 생리적 특징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문제를 반드시 “열린다, 닫힌다, 축이 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關闈樞로 풀어야만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關闈樞를 잘못 썼다는 한 가지 가정만으로 이론적 근거를 잃기 때문이다. 이상 추론에서 《陰陽離合論》의 關闈樞는 단지 문을 구성한 세 요소로 구역을 뱃댄 개념일 뿐이라고 할 수 있다.

나왔나(신체 표면이나)하는 표리 개념으로 陰中之陽과 陰中之陰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다시 남쪽 전면인 양달과 북쪽 후편인 음달 개념을 다시 합하여 체표면 陰中之陽을 다시 三陽으로 나누었고, 몸 속 陰中之陰을 다시 三陰으로 구분하였다. 성인(사람)이 남쪽을 보고 있다는 가정은 이러한 영역 구분을 그대로 인체에 적용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구역 개념은 문자만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입체적인 물건으로 설명하는 것이 이해하기 수월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문적으로 비유하여 ‘關闈樞’라는 용어가 출현한 것이다. 성인이 서 있을 때 그 장소가 마당이라고 가정한다면, 이러한 三陽 구역 개념을 눈앞에 있는 문짝(외문)을 보고 비유하고, 三陰 구역을 집 안에 있는 문짝(속문 : 참고문, 내문)에 그대로 비유할 수 있다. 그래서 필자는 三陰과 三陽을 각각 다시 합쳐서 一陰과 一陽이 되는 과정을 빗댄 말을 “搏而勿沈”와 “搏而勿桴”로 간주하였다. 마당에서 관찰하였을 때 걸 문은 뒷쪽에 빗장이 있어야 하고 집안에 있는 참고문은 빗장이 앞쪽에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걸 문은 안쪽으로 열리고, 참고문은 밖으로 열려야 한다(이 문제는 좀더 신중한 고찰이 필요하다). 그래서 걸 문이 닫혀 있는 상태는 문짝이 안으로 향하지 않은 상태이고, 속 문이 닫혀있는 상태는 문짝이 겉으로 향하지 않은 상태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원문 ‘桴, 沈’과 상태가 상반하고 있다. 그래서 필자는 ‘勿(금지하는 말)’을 활용하여 “搏而勿桴”를 걸 문을 닫아서(搏)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勿桴) 상태로, “搏而勿沈”을 속 문을 닫아서(搏) 안으로 물건을 넣지 못하는(勿沈) 상태로 풀이하였다. (필자 주)

III. 결론

〈陰陽離合論〉에서는 陰陽이 分化하여 나눌 수 있으나 다시 합하여 陰陽으로 귀납할 수 있다는 것이 중심 내용이다.

〈陰陽離合論〉의 三陰三陽은 인체를 前後, 表裏, 측면으로 나누어 배분한 개념이다. 본문에서 三陽은 체표면, 三陰은 신체 내부를 의미하여, '中'은 측면을, 위치를 나타내는 '上'과 '前' 그리고 '表'는 모두 숫아 나온 체표로 해석하면 三陰三陽 배속이 분명하게 구별된다.

體幹에서 三陰三陽을 表裏로 배속한 결과 三陽은 모두 표면이고, 三陰은 모두 몸 속이다. 그리고 결 부분인 三陽에서 太陽, 陽明, 少陽은 각각 全面, 後面, 側面이며, 속 부분인 三陰에서 太陰, 少陰, 厥陰은 각각 全面, 後面, 中間 부분이다.

經絡配屬은 입체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동인(銅人)에서 나타낸 것처럼 단순한 표면적 도식은 곤란하다. 속과 겉을 함께 관찰하여 입체적으로 도식해야 한다. 이때 體幹은 表裏概念으로 陰陽을 배분하고, 四肢는 陰陽 모두 體表에 배속해야 한다.

開闔樞는 關闔樞를 잘못 옮긴 오자다. 關闔樞는 생리와 병리를 설명하는 용어가 아니라 經絡配屬을 빗장, 문짝, 지도리에 단순하게 비유하여 입체적으로 설명하는 말이었으며, 후세에 이것을 입체적 배속보다 經絡을 중심으로 다시 表, 裏, 半表半裏로 나누고 생리기능으로 확대 해석함으로써 開闔樞를 해석하는 데에 혼란을 유발하였으며, 開闔樞에 관한 논쟁은 그다지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參考文獻

[논문]

- 김인락, 〈《內經》의 몇몇 句들에 대한 對句法的 연구(1)〉, 대한원전의사학회지 Vol. 5, 1991
- 박찬국, 〈東醫學의 성립에 대한 연구〉, 대한원전의사학회지 Vol. 5, 1991
- 옥도훈, 〈黃帝內經 素問 陰陽離合篇에 대한 고찰〉, 경희대학교 대학원, 1989
- 유기덕, 〈柯琴의 傷寒學說로 본 仲景의 六經體系〉, 경희대학교 대학원, 1988
- 이용범, 〈黃帝內經 本輸理論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1993
- 박왕용, 신민규, 〈陰陽運動과 六氣의 承制關係에 대한 考察〉, 동의생리학회지 Vol.3, No.2, 1988. p. 51
- [서적]
- 《黃帝內經素問》,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63.
- 《今釋黃帝內經素問》, 成輔社, 서울, 1994
- 《素問補識》, 中國醫藥科技出版社, 北京, 1991
- 《黃帝內經素問校注匯粹》, 金圭烈編譯, 一中社, 서울, 1998
- 《白話中醫四部經典》, 劉渡舟, 天津科技翻譯出版公司, 天津, 1994
- 《讀素問鈔》, 元, 滑壽 編輯. 明·汪機 續注.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8.
- 《懸吐黃帝內經講義》, 朴贊國. 서울, 경희대학교출판국, 1998